논어 6편 옹야 27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中庸之爲德也，其至矣乎！民鮮久矣！」

독음 · 자왈 중용지위덕야 기지의호 민선구의

쉬운 풀이(요약) · 치우침 없이 때에 맞게 행하는 중용의 덕은 지극하지만, 백성에게서 보기 드문 지 오래되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中 가운데 중 중 / 庸 쓸 용 용

之 갈 지 / 爲 할 위 / 德 큰 덕 덕 / 也 어조사 야

其 그 기 / 至 이를 지 지 / 矣 어조사 의 / 乎 어조사 호

民 백성 민 민 / 鮮 고울 선 / 久 오랠 구 구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